

무등산 원효사 지구 이전사업 '탄력'

기본계획 확정...16일 주민설명회 거쳐 올 말 착공 가사문화권·호수생태원과 연계 친환경 단지 조성

개발과 경관 보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장기 표류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원효사 지구 이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농협 충효동 지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전 대상 상인과 주민에게 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전 대상지인 충효동 일원의 가사문화권, 무등산, 호수생태원 등 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효사 시설과 상가(53개)를 광주 북구 충효동 757번지 일대 14만2470㎡(개발제한구역 11만3833㎡) 부지에 집단 이전한다.

이곳에 사업비 398억원을 들여 음식촌

(상가단지),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센터, 숙박시설, 생태·체험단지,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한다.

당초 계획됐던 주거복합단지, 전시·홍보 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변 가사문화권과는 정서가 맞지 않고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다.

또 700면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던 주차장을 483면으로 줄이고 대신 녹지공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업 대상지의 79.9%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

개발구역 지정은 완료하고 8월 토지보상,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 변화, 토사 유출, 먼지·소음 등 사업 시행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7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이 추진됐지만, 난개발과 경관 훼손 우려, 상가 수익을 위한 상업시설 확보 등 논란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민 제시 정책 제안 도정에 적극 반영" '도민과의 대화' 성공적 마무리 김영록 지사

"이같은 도민과의 대화라면 언제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대책을 제시해주시는 생각이 더 이상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지난달 26일 신안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주민의 소감이다. 그는 신안군 압해읍에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대비 20억원 지원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건넸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국비 50억원과 군비 5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었지만, 군 재정이 어려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압해읍 주민들이 신안군을 찾은 김 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의견을 경청한 뒤 "다문화가족,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정, 외국인 등을 아우르는 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지원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답변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인구 감소, 고령화 속에 시군의 성장 동력인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군 현안 사업비 규모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이끌었다.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발전 전에 최선을 다하는 시군 주민들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임했다"며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전남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8일 순천·여수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한 김 지사는 지난 28일 강진에서 이를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시·군이 김 지사에게 요청한 45건(사업비 210억원), 주민이 김 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288건(86억원) 등 모두 333건(사업비 296억원)에 대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22개 시·군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이나 우수시책은 물론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검토해 도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일주일여 한 차례 이상 도민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서 22개 시·군, 고령화 속에 시군의 성장 동력을 확인한만큼 도와 시·군과의 협력 사업이 향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조형물 제막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00일을 앞두고 2일 오후 서울 KTX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열린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에서 민주당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조형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어린이집 공기질' 인증제 확대

2020년까지 100곳 인증

광주시는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기존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기 위해 환경부

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안심 인증서는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석면 건축물 여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29곳인 환경안심 인증 시설을 2020년까지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안전인증 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서류준비 방법 등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사업,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등 질의 예고

전남도의회 임시회 3·5일 질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14명의 도의원들은 3일과 5일 열리는 제 3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도정의 공과를 되짚겠다는 각오다. 특히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도,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전남지역의 대대적 설립에 대한 의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3일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문행주

(화순 1·민주당), 박문옥(목포 1·), 김길용(광양 3·), 이혁제(목포 4·), 임종기(순천 2·), 유성수(장성 1·), 이보라미(영암 2·정의)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특히, 의원들은 광주지역에 집중된 5·18 기념사업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전남도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전남도의 5·18 기념사업(기록·표지석·기념관 등) 추진 계획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문행주의 의원과 우승희 의원이 관련 질의를 예고한 상태로, 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인권 업무 강화 방침을 묻는다. 우 의원은 5·18 민주

화운동 1호 사적지 지정 현황, 40주년을 맞아 5·18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체계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발굴·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호남의병추모관 건립 계획도 질의한다.

이혁제 의원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남도지사의 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보고,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고려한 전남지역의 대대적 추진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와 향후 진행 계획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장성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해마다 되풀이되

는 노지 채소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조치에 따른 근본적 대안을 묻는 질의(유성수 의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5일에는 이철(완도 1·민주당), 최현주(비례·정의), 우승희(영암 1·민주당), 최무경(여수 4·), 박진권(고흥 1·), 김경자(비례·), 강정희(여수 6·) 의원 등이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발한다.

최현주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조성하는데 대한 전남도 입장을 묻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성평등지사 제고방안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우승희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용역 결과와 전남도의 향후 방침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신일섭 호남대학교수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했다. 신임 신 대표는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신 대표가 10여

년간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전공 분야 연구 활동과 경험 등을 들어 전문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 현장과의 소통 부재, 도덕성과 준법성 부족 등을 들며 대표이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녹차수도 관광보성 축제

축제로 떠나는 여행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제45회 보성다향대축제

5. 2.(목) ~ 5. 6.(월)

📍 한국차문화공원, 차밭 일원

문의 061-850-5212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5. 3.(금) ~ 5. 5.(일)

📍 보성읍·판소리성지 일원

문의 061-850-5892
061-850-5202

제14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4. 28.(일) 08:00

📍 보성공설운동장

접수 061-375-1288(마라톤세상)
※ 4. 12.(금)까지 접수 / 현장접수 가능

문의 061-850-5962

+ 보성벚꽃축제 4. 6. ~ 4. 14. / 대원사 진입로 일원
 +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4. ~ 5. 6. / 일림산 일원
 + 울포 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5. 4. ~ 5. 5. / 축제 이후 9월 7일 까지 매주(토)진행 / 울포솔밭해변 일원